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회 개최

-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 체계 시동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0일(화)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지자체 8개도를 순회하면서 120여 개 농업단체, 1,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 행사로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청취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10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인의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안별 조치계획과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정책화하는 정책환류 계획을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 진행된 소통의 시간에는 농업인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타운홀 미팅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정 대전환의 기반을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 환류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 구조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노력 ▲수렴된 현장 의견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개선 노력 지속 ▲UN농민권리선언의 의제 논의 필요 등 추가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충북 등에서 농어업인의 적극적 참여 속에 개최되었고 경상남도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현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사무관	문병환 (02-6260-1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